

# 광산구, 비대면 민원 행정 강화

### 코로나19 여파 여권발급 81.2% 줄고 온라인 민원은 급증 무인발급기 4대 추가·'365 비대면 무인민원 발급존' 설치

광주 광산구가 코로나19 '비대면 시대'를 맞아 온·오프라인상 비대면 민원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광산구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함에 따라 감염병 사태 전후 민원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비대면 민원 처리를 돕기 위한 새로운 행정 시스템 발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일 광산구에 따르면 대표적 대면 민원 서비스인 여권발급 건수는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1만9135건에서 2020년 3602건으로 81.2% 급감했다. 신규 발급이 줄고, 사업·공무 상 이유와 여권 만료 문자 안내에 따른 재발급이 대부분이라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반면 광산구 전체 민원과 온라인 비대면 민원 처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12만여 건이었던 광산구 전체 민원은 2020년 149만 건을 넘겼다. 순 증가율은 32%로

37만 건에 육박한다. 광산구 민원은 크게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나뉜다. 통합민원창구·기한이 정해진 민원·여권·가족관계등록은 대표적 대면 민원이며, 무인민원발급기와 온라인 '정부24'는 비대면 민원이다.

대면 방식은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비대면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부24 이용 민원은 2019년 75만 4000건에서 지난해 111만 2000건으로 47%나 폭증했다. 이는 민원 서비스를 통합해 정부24를 개통한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41% 증가했던 수치를 넘어선 것이다. 전체 민원에서 정부24 민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9년 67%에서 2020년에는 75%로 치솟았다.

이 같은 현상은 코로나19가 민원 처리 풍속도를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2018-2019년 정부24 이용이 전체 민원의 14%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광산구는 코로나19 등이 견인한 비대면 문화에

맞춰 온·오프라인으로 비대면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민원인의 행정기관 방문 최소화를 위해 광산구홈페이지에 가족관계등록 신고 종합안내 콘텐츠 개선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는 정부24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을 받고 있으며, 스마트폰 정부24 앱(app)을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 등 13종의 전자증서도 발급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선 지난달 무인민원발급기를 4대를 추가해 총 29대를 운영중이다. 광산구청 현관에는 무인민원발급기와 정부24 전용 전산장비를 비치한 '365 비대면 무인민원 발급존'도 설치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분석을 통해 변화된 비대면 민원 환경을 확인했고, 시민의 민원 처리를 돕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더 빠르고 편리한 민원 처리로 시민의 시간을 아끼고 행복을 증진하는 민원행정 서비스의 모범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비대면 민원이 증가하면서 광주 광산구 민원실도 한산한 모습이다.

<광산구청 제공>

## “집 근처 도서관에서 편하게 책 받으세요”

### 공공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확대

광주시립도서관은 “집 근처 도서관에서 편하게 책을 받아볼 수 있는 상호대차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기존 상호대차서비스는 본인이 대출한 도서를 해당도서관이 아닌 광주 어느 공공도서관에서나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적 서비스였으나, 올해부터는 타 도서관의 도서를 집 근처 자주 방문하는 도서관에서 대출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

상호대차서비스는 현재 시립 3관(무등, 사직, 산수도서관), 서구립 3관(서구공공, 상록,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 북구립 3관(일곡, 운암, 양산) 등 총 9개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기관

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타 도서관 반납서비스는 기존과 같이 24개 공공도서관 전체에서 운영된다. 자세한 서비스 이용방법은 시 대표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도서관 자료실데스크에서도 가능하다.

최경화 시립도서관장은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서를 대출반납할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한 만큼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산구 '코로나 예방접종 시행본부' 운영

### 11월까지 구민 70%·28만명 신속·안전한 접종 실시

광주 광산구는 “지난 2일부터 광산구 예방접종 시행본부를 조직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지난 1일 광산구청에서 ‘코로나19 상황보고 및 백신예방접종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위해 예방접종시행본부를 조기 구성·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돈국 광산구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광산구예방접종시행본부를 조직했으며, 감염병대응지원단과 예방접종추진단, 지역협의체 등을 구성했다.

본부는 앞으로 질병관리청의 임시예방접종 시행

계획에 따라 이달 중 코로나 치료 종사자와 요양병원 직원·환자를 찾아가 방문 접종을 실시하고, 3월 중 광산구 임시예방접종센터를 보건병원에 설치하기로 했다. 또 5월에는 복지시설 종사자와 65세 이상 어르신 등의 접종에 나서고, 7월 이후부터는 전체 시민으로 접종 대상을 확대한다. 구는 광산구민 40만명의 70%선인 28만명의 접종을 달성해 11월 전 국민 집단 면역 계획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김 구청장은 “그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백신 예방접종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시민의 일상 회복과 행복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주 학교밖 청소년 'Job으로Go' 참여하세요

### 목공·미디어·미용 등 8개 분야

### 22일까지 참여자 32명 모집

광주시는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Job으로Go' 14기에 참여할 32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진로 설계를 희망하는 학교밖 청소년(만15~24세)이며, 청소년직업장 8개 분야에서 4명씩 총 32명을 모집한다. 참가자들은 각 작업장에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관련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다.

작업장 8곳은 목공 '생각하는손', 미디어 '찰나', 미용 '#애빠져라', 라디오방송 '안테나', 자전거 '바이크런', 쌀베이킹 '피크닉', 드론 '히니비',

카페 'Green LAB(그린랩)' 등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24일 1단계 '면접'을 시작으로 2단계 '맞보기워크숍'(토래관계 증진, 직업관련 기초 지식 습득), 3단계 '기초기술훈련'(기술 습득 및 생활습관 형성), 4단계 '직장체험'(인턴십), 5단계 '전문직업훈련기관 연계 및 취업' 등 과정이 4개월간 진행된다. 훈련수당과 직장 체험수당도 제공한다. 참가신청은 오는 22일까지며,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직업장은 2016년부터 281명이 참여해 상급학교로 18명이 진학하고, 17명이 자격증 취득, 관련분야로 21명이 취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산구, 의료·3D 스마트융합 인력 양성 나서

### 지역 맞춤형 일자리 공모 선정

### 3억4500만원 사업비 확보

광주 광산구는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광주 자치구 중 최대 규모인 사업비 3억4500만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공모는 지자체와 비영리법인 등이 협력해 시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고용 문제 해결 사업을 제안하면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 광산구는 ▲광주형의료·3D 스마트융합 인력양성사업 ▲뿌리산업 표면처리 인력양성사업 등이 선정됐다.

광산구는 이들 사업을 통해 시민 105명을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력으로 양성하고, 일자리까지 연결해준다는 계획이다. 광주형 의료·3D 스마트 융합 인력양성사업은 의료 소재부품 관련기업 52개사의 수요조사를 토대로 마련됐다. 수요조사에 참여한 다수 기업은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해당 인력을 고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

다.

공모 선정에 따라 광산구는 치과의료 전공자에게는 3D 디자인·제작 기술을, 3D 설계 기술 보유자에게는 생체의료 소재 교육을 실시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치과 분야 경험이 쌓이면 생체의료 소재부품산업과 안과·정형외과 분야로도 기술을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뿌리산업 표면처리 인력양성사업은 광주 표면처리 기업 80개 중 61개가 광산구에 있는 점, 환경 규제 강화로 표면처리 방식이 습식 방식에서 건식 코팅 방식으로 세계 기술 동향이 바뀌는 점 등을 감안해 마련됐다.

광산구는 공모사업으로 양성된 인력이 광주형 일자리 등 자동차산업의 지역 내 부품 납품을 제고에 기여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역 특성과 지역기업 수요를 반영해 공모 선정이라는 성과를 일궈냈다”며 “내실 있는 사업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해 취업률을 높이고,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에도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이진 장편소설

# 허균, 불의 향기

한글 문학의 뛰어난 성취인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 그에 대한 헌사가 소설 '허균, 불의 향기'로 피어나다.

역사적 사료 이면에 드리워진 진실을 이진 작가는 특유의 방식으로 탐색하고 풀어낸다.

출판사 : 국학자료원 새미(주) 02-442-4623

**- 작가의 말**  
“허균과 함께 한 지난 몇 년은 참으로 충만했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졌다. '사람들이 내 시를 보면 이것은 허균의 시다라고 말해주면 좋겠다'던 허균의 당당한 바람까지도 나의 것이 되었다. 이젠 그 충만감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가 된 듯하다. 혼자만 누리기엔 그가 너무 크다.”

**- 추천사**  
“휘몰아치는 강렬한 서사,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탁월한 이미지, 영롱하게 반짝이는 시적인 문장, 소름 돋는 전율에 취해 눈을 떼지 못하고 읽어내렸다. 조선이 버린 인물 허균이 이 소설을 통해 21C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탄생한다. 이름을 부르면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 같은 생동감 넘치는 인물들과 함께.”  
- 함진원 시인

이진 장편소설

조선 최고의 여성 시인이자 조선 최초 합류를 일으킨 주인공 허남설현 슬프고도 아름다운 일생이 그녀의 몸종의 시선으로 그려지다.

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북치는 마을)은 스물일곱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천재 시인 허남설현을 오늘 시대에 새롭게 되살려낸다.

**저자 이진**

소설가이자 문학박사. 목포대 강사와 광주여대 교수 역임. 소설 집 : '창',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꿈지를 위한 방법 서설' 장편소설 :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허균, 불의 향기' 등